

'익산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보석의 향연'

'주얼얼리스 2018 보석대축제'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주얼얼리스 보석판매센터 개최

1,400년의 역사를 가진 '보석의 도시' 익산에서 화려한 보석의 향연이 펼쳐진다.

(사)주얼얼리스 협의회(회장 정춘호)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익산시가 후원하는 "주얼얼리스 2018 보석대축제"가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익산시 왕궁 보석테마 대표관광지 내 주얼얼리스 보석판매센터에서 축제객을 맞이한다고 29일 오전 11시경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회장은 "천년의 사랑! 천년의 아름다움!을 내세운 이번 축제에서는 주얼얼리스의 64개 입주업체가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진주, 사파이어 등 5대 보석은 물론 저렴한 가격대의 약세시리 제품까지 10만여 점의 화려하고 진귀한 보석들이 한자리에서 고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정 회장은 "축제기간 동안에는 24시간(순금)과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모든 귀금속보석 제품을 30% 특별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오래된 보석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는 보석리세팅 서비스와 보석가공시연 및 무료세척 서비스 등도 제공된다고 홍보했다.

또한 정 회장은 "축제행사장 내에는 보석의 선택과 관리, 보석의 비교, 재미있는 보석이야기 등을 담은 보석카페가 마련되어 있으며"일광대학교 귀금속보석공예과 특성화 사업단 학생들의 보석가공시연 행사도 준비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것임도 불거리가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얼얼리스 정춘호 회장은 전국 유일의 보석축제이고 담긴 작품 전시들은 보석도시 익산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이라며 주얼얼리스 60여 개 업체들의 화려한 보석들과 명장들의 정성과 혼이 2018 새봄을 맞아 더욱 진귀하고 다양한 보석은 물론 많은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의 보석축제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새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춘호 회장은 "주얼얼리스



(사)주얼얼리스 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익산시가 후원하는 "주얼얼리스 2018 보석대축제"가 4월 4일부터~15일까지 익산시 왕궁 보석테마 대표관광지 내 주얼얼리스 보석판매센터에서 축제객을 맞이한다고 29일 오전 11시경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리스 귀금속보석판매센터는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8 (보석박물관, 익산 IC 옆)주소와 대표전화(063-834-5100)

로 방문하실 때 문의해 주고 즐거운 관광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박재만 군산시장 예비후보, 노동복지공약 발표

박재만 군산시장 예비후보자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이퍼트 경비원을 비롯해 청소년,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거래를 개선·예방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전담팀이 필요하다면서 '갑을상생팀' 신설을 주장했다. 군산의 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 조성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협력문화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예비후보는 현재 전북도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눈물을 흘려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는 모두가 나서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 줄 때이다"면서 "갑을상생팀을 계승 발전시켜 '노동복지센터'로 확장하여 부당하고, 산업재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자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날 발표한 '노동복지공약'에는 갑을상생팀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체불임금 제로 군산발기기, 지역아우터 운영, 공영주택, 육아휴직의 일상화 등 10대 공약 등을 담고 있다.

/군산=김관근 기자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국화분재 전문가 양성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는 30일 농업인교육관에서 교육생 90여 명을 대상으로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국화분재 전문가 양성을 위한 2018년도 시민 국화분재 전문과정교육 개강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분재국 작품사진 감상과 삼목, 적십 기본 수형잡기 등 이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11월까지 매월 2회씩 총 17회의 교육을 진행해 초보자도 쉽게 배워 우수한 작품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이론과 현장실습 교육 등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회원들은 이론 밖 국화 삼목으로 시작해 여름에는 국화분재 수형 잡기, 가을에는 활짝 핀 분재국을 감상하는 등 국화분재 전 과정을 배울 예정이다.

또한 국화절을 만지며 진한 국화 향기를 느낄 수 있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1석 2조의 일석치로 효과를 경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많은 회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만큼 더욱 우수

한 작품을 출품할 수 있도록 국화분재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화사랑연구회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국화분재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국화분재를 재배하여 국화전문가를 양성했고,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국화분재 전시회에 출품하여 국화축제를 전국 최고의 축제로 발돋움 하는데 기여했다.

지난해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특별전시장을 운영하였는데, 특별전시장 내에서도 국화분재가 전시된 실내전시장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인기코너로 익산 국화분재가 전국 최고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저소득층에 목돈마련의 기회 제공

군산시, 희망키움·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 통장 신청·접수

군산시에서는 저소득층에게 희망찬 내일의 초석을 위한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선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선형성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및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구분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희망키움 I 가입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이며, 희망키움 II 가입대상은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이다.

또한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자는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이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만 15~34세)이 대상이다.

희망키움 I·내일키움통장은 오는 4월(4월의 경우: 4월 2일부터 9일까지 신청)부터 11월까지 매월 모집하고, 희망키움 II는 6월(6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8월·10월 각각 매월 초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오는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연 1회 모집 예정이지만, 4월 신청 인원 등을 집계해 필요시 5월과 6월에 추가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대상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적인 홍보를 통해 희망키움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하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는 "자신 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청년 수급자들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통해 자활의욕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입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선형성지원사업은 자립을 꿈꾸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을 충실히 납부하고 탈수급할 경우 자활·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직접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산=김관근 기자

익산 순환형 시티투어 도 대표 여행상품으로 운영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익산 순환형 시티투어가 전북투어패스 자유이용상품이자 전북도 대표 여행상품으로 운영된다.

시에 따르면 이달 31일부터 전북도는 익산 순환형 시티투어를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 즐길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 자유이용상품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익산 순환형 시티투어를 전북 대표 관광상품으로 소개하고 전북투어패스 이용객이 시티투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내 단말기를 설치했다.

익산 순환형 시티투어는 최근 SNS 상에서 사진찍기 명소로 급부상한 익산 교도소 세트장 합월 고스락 향아리정원 등 익산 내 인기 관광지를 편하고 저렴한 가격에 둘러볼 수 있는 상품이다.

작년부터 운영된 익산 순환형 시티투어는 관광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북투어패스를 구입하면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에서 할인 혜택도 주어지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 노사협력 발전 위한 현장행정 펼쳐

익산시(시장 정현용)는 29일 제2산업단지 내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체인 (주)두산전자BG를 방문해 노사협력 발전을 위한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번 현장행정정은 (주)두산전자BG 노동조합 임원들과 간담회를 나누고 이어 현장 및 생산관리자와 간담회를 통해 노동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정목용 (주)두산전자BG 익산공장 대표는 "노사간에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지향적인 선진 노사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두산 노동조합익산지부 지부장은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보상 받는 기업조직원화를 바탕으로 노사상생 협력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정현용 익산시장은 "정목용 (주)두산전자BG 익산공장장과 노동조합 임원들을 만나 앞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우리지역의 노사문화가 상생화합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동북아경제추진 명품도시 군산